

문화



박문경 첼로독주회

바흐 페스티벌 -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랑 현악사중주단

▲ 10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24일 ▲

깊어가는 가을 바흐에 빠져볼까

내년에도 계속...광주시향 이종만 악장·피아노 김정아씨 참여

지역 클래식 음악계의 아쉬운 점 중 하나가 개인 독주회나 음악그룹들의 정기연주회는 많지만 클래식의 다양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획 연주회가 드물다는 점이다. 작곡가 김선철씨가 대표로 있는 클래식 공연 전문기획사 T&T 예술기획이 진행하는 '바흐 페스티벌-음악의 뿌리를 찾아서'는 그런 점에서 반가운 기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현악 4중주 등 다양한 악기로 바흐의 곡들을 섭렵하는 행복한 시간이다. 첫번째 시리즈 주인공은 첼리스트 박문경(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스콜피아 오케스트라 단장겸 지휘자)씨다. 1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박씨는 '첼로음악

의 구약성서'로 불리는 바흐의 '첼로 모음곡'을 연주한다. 바흐가 죽은 지 200여년이 지난후 첼리스트 카잘스가 바르셀로나 현책방에서 악보를 발견, 1909년 공식 석상에서 초연한 '첼로 모음곡'은 많은 첼리스트 뿐 아니라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곡이다. 박씨는 이번 공연에서 1번과 3번, 6번을 들려준다. 두번째 시리즈는 오는 24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주인공은 울초 창단연주회를 가진 랑현악사중주단. 신정문(비올라·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 이수연(바이올린·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 김재은(바이올린·전남대예술연구소 강사), 윤소희(첼로·전남대 등 롱강)씨 등 베테랑 연주자들로 구성된 랑현악사중주

단은 바흐의 '푸가의 기법' 전곡을 들려준다. 광주에서는 처음 연주되는 곡이다. 바흐페스티벌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4월 2일에는 역시 금호아트홀에서 올해 새로 광주시립교향악단에 동지를 든 이종만 악장이 공연을 갖는다. 지역 클래식팬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무대로 연주 레퍼토리는 바흐의 '파르티타와 소나타'다. 이어 4월 16일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 음악학과)씨가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선사한다. 30개의 변주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연주시간만 50분에 이르는 대곡이다. 이번 페스티벌의 모든 공연은 초대권 폐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전석 유료로 진행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선과 색으로 빚어낸 '꿈의 여정'

진원장 5일부터 보성 우종미술관 초대전

선과 색의 화가 진원장(조선대 미술대학 교수)씨가 오는 5일~2012년 1월 15일 보성 우종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꿈의 여정'을 주제로 거침없고 강렬해진 색채와 과감한 붓질이 돋보이는 신작을 선보인다. 원색의 바탕 위에 꽃과 활아리, 여인, 식물 등을 대비시켜 강한 생명력을 전해주는 작품들이다. 또 강렬한 색채 대비와 사물들의 병렬을 통해 다양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다. 미술평론가 장민환씨는 이번 전시에 대해 "구상적인 양식과 추상적인 양식을 적절히 사용해 고유한 심상 이미지를 창출했고, 이를 통해 꿈과 추억을 반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평했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 출신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남도전 최고상 등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미국, 프랑스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광주 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기념 초대전 등에 참가했다. 현재 국전 심사위원과 이인성미술상 운영위원,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운영위원, 광주시립미술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804-109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신세계미술대상 서미라씨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주는 신세계미술상 대상에 서미라(회화·44), 우수상 최영경, 신진작가상 고석민씨가 선정됐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서씨는 "아이디어가 난무하는 요즘 미술관과는 달리 회화의 기본에 충실한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씨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



자)씨가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고, 모든 수상자에게는 개인 초대전과 해외 문화 답사 등이 지원된다. 한편 이번 미술제 심사에는 고충환(미술평론가)·공성훈(성균관대 교수)·김윤경(독립기획자)씨가 맡았다. /오광록기자 kroh@

인터넷 도서판매 40% 육박

인터넷을 통한 도서 판매 비중이 도서 시장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만화책과 잡지 등을 제외 한 책을 한 권 이상 읽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성인의 65.5%였다. 2009년의 71.7%에 비해 6%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유럽연합(EU) 평균인 71%보다도 낮다. 3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간한 '2011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도서 시장(2조8000억원 추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출은 9270억원으로 전체의 39.0%를 차지했다. 32.8%보다 6.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서점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9.7%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섰다. 인터넷 서점별로는 전년 대비 9~16%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상위 5개 서점 중에서는 리브로만 매출이 11.37%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교과서에 나온 노래 들어보실래요?

청소년음악회 5일 유·스퀘어

'교과서에 나온 노래 들어보실래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오는 5일 오후 3시~7시 두차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조선대 동문 성악연구회(회장 윤원중)가 마련한 이번 공연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가곡과 민요, 오페라 아리아와 영화음악 등을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레퍼토리는 조두남 곡 '산천',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 슈베르트 곡 '음악에', 이탈리아 민요 '산타루치아' '오 솔레미오', 오페라 '피카르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 등이다. 출연자는 소프라노 이찬순·김선희·구성희·나혜숙·주경희, 메조소프라노 김영실, 바리톤 김용원·박승현씨 등이다. 피아노 반주는 윤미경·박지현씨. 문의 062-971-97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래와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교양스럽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결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여,호텔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년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참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

슬로우시티 담양!!
한옥(예정)마을 조합원 추가모집
금번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일대에 한옥(예정)마을을 조성코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향후 지정예정이며, 경질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면적 32.195㎡(구, 9.739형) 대지에 31세대 분양
•고서-대덕간 도로확장공사 예정, 개통시 광주-대덕간 9분 소요
•순천 및 서울방향 진출용(창명 IC)
•버스노선 518, 303번 운행 말미우시장 20분내 도착가능
•조합원 기입비 200만원 납부
•태양광 및 지열을 이용한 전력공급 시스템설치(세대당 설치비 부담 있음)
•제1금융권 3,000만원(연리 2%)까지 대출(3년거치 7년 분할상환)
•향후 한옥(예정)마을을 민박촌으로 지정 예정이며 창명 슬로시티 및 담양인근 관광객 숙박 유치(메타세쿼이아길, 축녹원, 관방제림, 소재원, 식영정 등 주변 관광지 다수)로 전원생활과 소득창출 가능
조합원 가입문의 010-7210-6118 · 010-4025-2340 · 010-4025-6911 · 062-265-3125
현장위치 :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212번지 일원